

SK 텔레콤, 2019 년 연간 실적 발표

- 매출 17 조 7,437 억 원, 영업이익 1 조 1,100 억 원, 순이익 8,619 억 원
- 사상 최대 연매출 달성...미디어, 보안 등 신성장 사업이 실적 상승 견인
- 5G 및 New Biz. 사업 견고한 성장 통해 올해 매출 19 조 2 천억 원 전망
-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초협력 강화해 글로벌 New ICT 기업 가치 입증할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퍼런스콜은 금일 오전 11 시 예정이며,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국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4_kr.php

(영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4_en.php

[2020. 2. 7]

SK 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 년 연간 매출 17 조 7,437 억 원, 영업이익 1 조 1,100 억 원, 순이익 8,619 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7 일 밝혔다.

매출은 연간 기준 사상 최대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미디어와 보안 등 New Biz. 영역에서 규모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도하며 1 위 통신 사업자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한 결과다.

영업이익은 5G 주파수 비용을 포함한 5G 네트워크 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영향 등으로 72.5% 감소했다.

■ MNO 매출 작년 2 분기 이후 반등...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신규 동력 성장 지속

SK 텔레콤의 별도 기준 연간 매출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11 조 4,162 억 원을 기록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 5G 가입자 증가 추세에 힘입어 작년 2 분기부터 이동전화 매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매출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SK 브로드밴드 IPTV 사업 매출은 프리미엄 가입자 확대 및 콘텐츠 이용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 조 2,985 억 원을 기록했다. '19 년 연간 가입자 순증 46 만 4 천 명을 달성해 누적 IPTV 가입자 519 만 명을 확보했다.

ADT 캡스와 SK 인포섹으로 이루어진 보안사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7.4% 성장한 1 조 1,932 억 원, 영업이익은 21.9% 증가한 1,535 억 원을 달성했다. ADT 캡스는 출동보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SK 인포섹과 함께 물리보안에서 정보보안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커머스 사업에서 11 번가와 SK 스토아는 내실 있는 사업 성장을 이룬 덕분에 모두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 'MNO'와 'New Biz'가 양대 성장 엔진...초협력 통해 기업가치 제고

SK 텔레콤은 본격 5G 시장 확대로 재도약하는 MNO 사업과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에 기반해 올해 연결 매출을 19조 2천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SK 텔레콤은 올해 MNO 사업에서 다양한 국내·외 사업자들과의 초협력을 통해 5G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B2B 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SK 텔레콤의 5G 가입자 수는 작년 말 기준 208 만 명을 기록했고 올해 말까지 600~70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사업에서는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을 4 월 말 출범시켜 8 백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종합 미디어 사업자로 본격 나선다. 또 국내 방송 3 사와 합작해 선보인 웨이브(WAVVE)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 프리미엄 콘텐츠 역량 강화에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보안 사업에서는 SK ICT 패밀리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융합 보안 상품, 무인주차, 홈보안 등을 확대하고 시니어 케어 등 고도화된 기술 기반 서비스를 선보이며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커머스 사업은 올해 시장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며 내실 경영을 지속해 나간다. 11 번가는 파트너십을 확대해

차별적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쇼핑 검색에 재미까지 더하는 더욱 고도화된 '커머스 포털'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기업가치를 5 천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1 천억 원의 신규자금을 유치했고, e 스포츠 게임단 'T1'은 4,100 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글로벌 e 스포츠 기업을 합작 설립하는 등 신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풍영 SK 텔레콤 CFO 는 "SK 텔레콤은 진정한 글로벌 New ICT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다져왔다"며 "올해는 재도약하는 MNO 와 지속 성장하는 New Biz.를 양대 성장 엔진으로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